현대엘리베이터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초석을 다지다 **현대엘리베이터**



설립연도
1984년

업종
제조업

근로자 수
1,000명 이상(국내 기준/2022년 의무화 사업장)

홈페이지
www.hyundaielevator.co.kr

컨설팅 구분
재취업지원서비스 이행 우수 사업장

참여 배경

· 2020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정년퇴직예정자 증가 추세
· A/S 부문의 자회사 설립 시기와 맞물려 정년퇴직예정자의 재취업 가능성 확대

컨설팅 포인트

· 재취업, 진로설계 등을 아우르는 교육과정 설계
· 다양한 재취업 정보 제공으로 교육생 만족도 상승



국내 최대 글로벌 승강기 전문기업

1984년 창립한 현대엘리베이터는 연간 승강기 생산 대수(2021년 기준) 2만 5,598대, 국내 시장점유율 39.2%에 달하는 국내 최대 글로벌 승강기 전문기업이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 승강기 분야에서 최고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승강기 신규 설치 부문 15년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다. 국내 승강기 유지·관리 부문에서도 7년 연속 1위를 달성하며 고객 신뢰도를 입증했다.

승강기 제조, 설치, 판매, A/S가 사업의 큰 축을 이루는 현대엘리베이터는 2022년 본사와 주공장을 경기도 이천에서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 내 충주 스마트캠퍼스로 이전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전 공정의 자동화 비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22년 7월 충주 스마트캠퍼스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미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서 '2030년까지 매출 5조 원, 해외사업 비중 50%, 글로벌 톱5 기업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미래의 꿈을 현실화하는 통로가 되겠다.'는 각오로 혁신 중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글로벌 톱5 진입 달성을 위해 안전경영 강화, 책임경영, 일하는 방식의 변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디지털 마인드를 기반으로 '버티컬 e-모빌리티 시대'를 당당히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술력과 전문성을 살린 재취업의 기회

현대엘리베이터는 2020년 5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시행에 발맞춰 제도를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정년퇴직예정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제도를 두지 않았다. 기업의 역사가 길지 않아 정년퇴직예정자 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도 있었다.

현재는 2020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20명 이상씩 퇴직예정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 승강기 유지관리업 전문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자회사 '현대엘리베이터서비스'를 설립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정년퇴직예정자들의 재취업 기회가 자연스럽게 확대됐다.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듯 필요한 타이밍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가 시행된 셈이다.

승강기 제조, 판매, 설치, 보수·관리 사업은 단순히 자재와 재료를 납품하는 것과 다르다.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완성품을 출하하는 방식도 아니다. 승강기는 반조립 상태로 출하한 뒤 설치 현장에서 조립이 이뤄지기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업종의 특수성 때문에 뛰어난 기술력과 전문성을 요한다. 그래서인지 40년 가까이 현장에서 기술과 경험을 쌓아온 퇴직예정자를 필요로 하는 곳은 많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전문성을 가진 퇴직예정자를 선별하고, 각 사업본부에서 필요 인원을 요청하면 퇴직 후 별정·촉탁직으로 재취업을 알선하는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미래를 설계하는 동기부여 시간

현대엘리베이터는 2021년부터 당해 연도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퇴직하는 해에 진행돼 다소 촉박한 감이 없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법정 준수시간인 16시간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며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1박 2일 집체교육으로 진행됐다. 만족도 조사나 현장반응을 보면 재무설계 과정의 열기가 대단했다. 특히 4대보험 프로그램은 속속들이 알지 못했던 공공자원을 3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탐색한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았다. 컨설팅 수행기관과 현대엘리베이터 담당자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을 알차게 설계한 덕분이었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노조 위원장과 집행부의 깜짝 방문도 정년퇴직예정자들에게는 잊지 못할 이벤트였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오랜 세월 회사 발전에 헌신한 이들에 대한 작은 예우이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동기부여의 시간이 되고 있다.

퇴직예정자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컨설팅 수행기관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기업 담당자의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중요하게 작용한다. 현대엘리베이터 담당자는 컨설팅 대상자들과 함께 머무르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다. 퇴직예정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 청취하며 더 나은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대상자로 선정돼 제도 설계를 완성한 덕분에 기업 환경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었다. 30~40년가량 회사에 몸담으며 수많은 교육을 받아보았던 퇴직예정자들은 기대 없이 왔다가 높은 만족감을 안고 돌아갔다. 그중에는 발 빠르게 관련 분야 재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도 있고, 잠시 쉼을 가진 후 재취업을 고민해보겠다는 직원도 있다. 또 누군가는 전원생활을 계획하거나 사회공헌활동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듯 퇴직예정자 개개인이 바라고 꿈꾸는 인생 2막의 그림은 모두 다르다.

담당자는 퇴직예정자들의 희망대로 인생 2막을 이어가길 적극 도모하는 한편 가까운 미래에 재취업, 창업 등에 관심이 생긴다면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이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아직은 걸음마를 뗀 것에 불과하나 향후 재취업지원서비스가 탄탄히 뿌리내리는 과정 속에서 퇴직예정자에 대한 사내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차원의 인증제도 도입을 제언했다. 기업의 화두인 ESG경영에 발맞춰 사회(S) 부문에 퇴직예정자 교육 가점을 부가하고,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면 재취업지원서비스가 더욱 빠르게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Interview

흥미로운 인생 설계의 기회

이장행
CPO 산하 생산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됐습니다. 나름대로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찾고 있었는데 그 수준이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재취업 정보를 제공받으며 여러 과정과 기관을 알 수 있었지요. 퇴직 이후 현명한 자산관리를 위한 재무설계,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변화와 전환을 돕는 라이프 디자인 과정이 유익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동기도 생겼습니다. 남은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취업의 세계로 입문

육민수
CPO 산하 신공장건축 TF팀

재취업서비스를 받으면서 관련 컨설팅 전문기관과 다양한 정보 습득의 장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고용노동부나 정부 산하 고용안정정책 서비스 기관의 재취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서비스 참여 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해소되었고, 재취업에 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접하면서 향후 진로설계에 도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인만큼 전직 진로설계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